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연구

권 순 미*

I. 서론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쳐 정보화 사회로 급격한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경제성장정책의 결과로 황금만능적 가치와 이기적 생활풍조의 만연,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한 성공과 성취보다는 개인의 성공에 비중을 두는 사회적 가치의 확산으로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입시위주의 과행적 교육으로 청소년들을 규격화, 형식화, 비인간화 하고 있다. 학교 공부가 절대적인 가치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해서 갖는 열망과 부모의 기대에 대한 괴리가 클 때, 청소년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화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또래관계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경쟁적이며, 각박한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게 되어 상호간에 따돌림이나 나아가서 폭력현상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조학래, 1996: 1-2).

다행히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한 병폐를 개선하고 건전한 인성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교육개혁안(1995. 5. 31.)에 실천위주 인성교육 차원에서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제도화 되었다. 제도화로 인해 강제성이 동반되었다고 하지만,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장차 성인이 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여 보다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 수

* 강남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결대학교 강사
안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연구위원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체험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의미와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므로 비행예방은 물론 사회참여의 기회와 복지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다중적인 의의를 가진다(Switzer et al., 1995: 441-446).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시민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Youniss & Yates, 1997: 138-139). 더불어 사는 공동체는 민주시민 의식의 토대 위에 가능한 것이기에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과정의 하나로 제시되어야 하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청소년 자원봉사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려면 자원봉사가 지속적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생활 속에 정착될 때만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과 준비 없이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점수만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시간만 채우는 활동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어서 진정한 인성교육의 효과와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조학래·권중돈, 1996: 11-13).

특히 학부모와 교사들마저도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인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점수를 위한 하나의 과목 정도로 생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수요처 담당자들도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취지나 정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하는 경우와 청소년에게 제공해야 하는 적합한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의 미흡으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심리적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못하므로 인해 자원봉사를 지속적 활동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자원봉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 교사, 봉사수요처 지도자들이 어떻게 자원봉사활동을 지도하고 교육, 관리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행연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을 지속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입증되고 있지 않아 과학적 측면에서의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는데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교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의 개인요인과 가정요인, 학교요인, 그리고 자원봉사 장(setting)에서의 경험 요인이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가정, 학교, 지역사회 및 자원봉사 수요처에서 지속을 보장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방안과 활성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속의 영향요인에 관한 고찰

1. 개인요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리라 사료되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인 성별, 종교, 도덕성, 성적, 자원봉사 동기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려고 한다. 우선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이타적 속성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는 Wright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더욱 책임감 있고 인간관계에 깊이 관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보다 이타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더욱이 사회의 압력이 여성으로 하여금 아동양육이나 간호와 같은 보다 양육적이고 자기 회생적인 역할을 준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남성보다 더 이타적인 경향을 갖는다고 한다(조희일, 1990: 29).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15세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캐나다의 한 조사에서도 여성들의 참여도(30%)가 남성(2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15세-19세 청소년들만을 분석해 본 결과도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Pancer & Pratt, 1999: 35-38). 그러므로 청소년 자원봉사가 제도화되어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오랜 동안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역할기대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두 번째로 Pratt와 Pancer(1999)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종교적 신념을 제시하였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나(조학래, 1996 ; Pancer & Pratt, 1999)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성인 자원봉사자(조희일, 199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7)에 대한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의 70% 정도는 종교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기독교로 응답한 경우가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이타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종교적 신념으로 사회화 된다면 자원봉사활동 지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세 번째로 도덕성을 자원봉사활동 지속에 영향요인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과 관련하여 많은 이론가들은 도덕적 행동을 돋기, 친절, 공유, 협동하기 등과 같은 도덕적 권장 행동(친사회적 행동)과 속이기, 거짓말하기, 훔치기, 공격하기 등과 같은 도덕적 금지 행동으로 분류하여 연구해 왔다(최순영 · 김수정, 1995; 김경연 · 하영희, 1998; Bandura et

al., 1996). 최근 Bandura 등(1996)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도덕적 행동을 연구한 결과, 돋기, 친절, 공유, 협동과 같은 행동을 많이 할수록 훔치기, 속이기, 거짓말, 약물남용 등을 적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경연·하영희(1998)의 연구에서도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 위반 행동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인 중학교 3학년 청소년들의 도덕성은 이미 아동기를 거치면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도덕적 권장행동(친사회적 행동) 중의 하나인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청소년의 도덕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넷째로 현행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해 성적에 대한 관심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은 성적이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우리 청소년들은 현재 학교수업 이외에도 대다수 학생들이 과외학습을 받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Pancer와 Pratt(1999)의 연구에서도 시간의 부족이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하는데 저해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시간 부족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으나 성적에 반영되는 활동이므로 자원봉사활동 지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도 지속에 영향요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인간행동의 동기는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 또는 타인지향적 동기와 자기지향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직업적인 일의 상황에서는 각 개인의 기본적인 행동의 동기를 이기적 동기로 볼 수 있으나 자원봉사의 상황에서는 이타적 동기를 중심동기로 볼 수 있다. 이타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비이기적 행위 또는 타인을 위한 희생을 반영한다는 것이었으나 사실상 대부분의 동기 이론 및 조사,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방향을 지향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한다(조휘일, 1990). 그러므로 자원봉사의 동기는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자원봉사는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Clary & Snyder, 1991: 141).

최근 세 번에 걸친 미국의 Gallup조사에서 자원봉사 동기에 대한 결과에 의하면, '남을 돋기 위해서'라는 이타적 동기가 가장 높았다(1981년 45%, 1985년 52%, 1988년 55.8%). 그 다음으로는 '나를 필요로 하므로'(1981년 29%, 1985년 32%, 1988년 33.5%), '종교적 관심에서'(1981년 21%, 1985년 27%, 1988년 21.8%) 순이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서'와 '여가 시간이 많아서' 등과 같은 이기적 동기는 각각 세 번 조사에서 모두 10%정도에 지나지 않았다(Clary & Snyder, 1991: 137-139). 그러므로 미국의 성인 자원봉사자들의 동기는 이기적 경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이타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93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 인구의 48%가 주당 4.2시간의 참여율을 보이며(조휘일, 1998:

71-72), 생활 속에 지속적인 활동으로 뿌리내린 미국은 앞에서도 고찰한 바와 같이, 성인의 경우 이타적 동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는 미래의 직업을 탐색하기 위한 동기, 체험을 통한 학습과 사회성 증진, 자기성장을 위한 동기 등과 같이 이기적 동기가 우선한다고 주장한다(Anderson & Moore, 1978: 51-60).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인들은 자원봉사 참여동기가 이타적일수록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소년들은 이기적 동기로 인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자원봉사 동기에 따라 지속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정요인

사회학습 이론에 의하면 이타적 행동은 의미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직접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강화를 함으로써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인간은 부모와 동료들, 그리고 다른 성인들이 제공하는 학습기회를 통해 이타심을 배워야 하는데, 타인을 돋는 행위가 물질적 보상을 받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강화 받는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이타적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Bar-tal, 1976). 더욱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이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배려할 수 있는 부모들의 양육 방식은 학습과정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Staub, 1981)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지속되려면 사회화와 양육의 실제적 주체인 부모의 관심과 지지는 매우 중요한 강화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도덕적 행동모델에 노출정도가 높을수록 관찰자의 도덕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도덕적 행동은 외적 강화없이도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획득된다고 한다. Staub는 모델의 영향에 대한 분석(1978)에서 일반적으로 비이기적인 성향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욕구를 모델이 갖고 있다는 것을 관찰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모델의 행동을 모방하기 쉽다고 하였다. 특히 아동의 경우는 모델의 행동이 적절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기준을 제시하며 기대치를 설정해 줄 때 모델을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므로 자녀의 모델임과 동시에 사회를 이어주는 연결자인 부모의 후원 및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언어적 설득이나 교훈보다 청소년의 행동과 그와 관련된 사고와 감정의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므로 부모님의 자원봉사 본보기는 청소년의 지속적 자원봉사활동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3. 학교요인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곳이 학교이며, 학교는 독특한 체계와 구조를 지닌 하나의 사회이다. 학교는 단지 일정한 지식만을 주고받는 장소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상황이 반영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상호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서 사회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특히 관찰을 통한 학습은 친사회적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Rushton, 1980), 언어적 설득이나 교육보다 행동을 통하여 모델이 되었을 때, 즉시적이며 지속적인 효과가 있음을 주장한다(Rice & Grurec, 1975; Rushton, 1982). 그러므로 교내·외에서 봉사활동 실천을 생활화하는 교사의 모델은 얼마나 관찰하였으며, 그러한 교사에 대해 존경했던 경험은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강화하는 요인이라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의 교사가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담임교사가 조·종례 시간과 학급회의 등을 통해 교육·지도하고, 교과 담임이 수업시간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면 효과가 크다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봉사체험을 했던 수지고등학교 교사 이해숙(1999)은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자원봉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자원봉사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과 의지라고 주장하면서 학교장이 어떤 시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를 바라보며, 어떻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이해숙, 1999: 15). 이와같은 교육현장의 경험을 근거를 통해 봉사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 학교장의 권장정도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현재 학교 조직체계에는 공식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전담하여 지도하는 체계가 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 공식적으로 환경부내에 봉사계가 있으며, 전담교사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마다 공식적인 도움체계가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봉사수요처와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봉사활동 지도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봉사학습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을 학과목과 연계하여 교사에 의해 철저히 계획하고 지도하므로 자아정체성속에 시민의식이 확립되었다는 보고하고 있다(Yates, 1999).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학내에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줄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4. 자원봉사 장(setting)요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제도화되면서 혼히 사회복지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왔던 봉

사활동 수요처가 공공기관, 시민단체, 의료기관, 지역사회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다양한 자원봉사 장(setting)에서의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정도나 담당자의 태도, 어떤 형태로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했느냐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리라 사료된다.

자원봉사자가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대한 업무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Vroom(1964)의 의해 만들어진 기대이론이 있다. 기대이론은 왜 자원봉사자들이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머무르느냐를 설명하는데 높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론이다. 기대이론에서는 자원봉사자가 담당한 업무가 그들의 기대에 상응하지 못할 때는 활동을 계속하려는 동기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계속 프로그램에 머물게 하려면 봉사업무의 수준과 성격이 그들의 기대에 적합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Moore, 1985: 61).

또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기관은 하나의 조직이므로 어떻게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느냐 하는 측면은 조직관리상 매우 중요하다. 기관 담당자와의 인간관계와 봉사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자원봉사자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주는 방법이며,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기관의 지도자에게 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관심과 배려가 주어지느냐에 의해 활동에 만족감을 경험한다는 것이다(조휘일, 1998). 한수정(1999)도 자원봉사자와 기관의 담당자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조휘일(1990)의 연구결과에서도 과업에 대한 체계적인 배경과 지시감독 및 인간적인 배려가 자원봉사 활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Hartub와 Coates(1967)는 아동이 또래 집단을 모방한다고 주장하면서 이타적인 친구모델과 어울린 아동들은 모델과 접촉하지 않은 아동들보다 더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Bar-tal, 1976). 청소년기는 또래로부터의 영향이 다른 환경의 영향보다 많다고 할 수 있으며,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는 친구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공유할 수 있다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활동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했는가에 따라 지속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가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속성과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자원봉사 장(setting) 요인과의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은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이 높을 것이다.
- 1-2. 종교를 가진 청소년일수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이 높을 것이다.
- 1-3. 도덕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이 높을 것이다.
- 1-4. 청소년의 성적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5. 자원봉사 동기가 이타적일수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 청소년의 가정환경은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부모의 관심과 지지를 많이 받는 청소년일수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이 높을 것이다.
- 2-2. 부모가 후원이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수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 청소년의 학교환경은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 자원봉사활동을 실제로 실천하는 교사를 존경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이 높을 것이다.
- 3-2. 자원봉사활동에 실제적 도움이 되는 사전 교육을 받은 청소년일수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이 높을 것이다.
- 3-3. 교장선생님에 의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교육받고 해 볼 것을 권장 받았다고 인지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이 높을 것이다.
- 3-4. 학교 내에 자원봉사활동을 도와주는 체계 유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 자원봉사 장(setting)요인은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1. 자원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만족감을 경험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이 높을 것이다.
- 4-2. 기관담당자에 대한 만족감을 경험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이 높을 것이다.
- 4-3. 친한 친구와 함께 자원봉사활동 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이 높을 것이다.

2. 종속변인

본 연구에서의 지속성이란 지속의지와 지속시간이 합쳐진 개념으로 지속의지가 확실하고 중학교 3년 동안 의무시간 두 배인 4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청소년들을 지속성이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며, 지속의지는 강하나 지속시간이 20시간 이하의 청소년과 지속의지는 약하나 지속시간은 4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청소년을 지속성이 중간정도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지속의지가 약하고 지속시간이 20시간 이하의 청소년들을 지속성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3. 독립변인

1) 개인요인

청소년의 성별, 종교, 도덕성, 성적, 자원봉사활동의 동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2) 가정요인

부모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 및 지지정도, 부모의 후원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유무 등으로 구성되었다.

3) 학교요인

봉사모델로서의 교사를 존경한 정도, 자원봉사활동에 도움이 될만한 사전교육정도, 학교장의 권장정도, 학교의 공식적인 도움체계유무 등으로 구성되었다.

4) 자원봉사 장(setting) 요인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만족정도, 기관지도자(담당자)에 대한 만족정도, 활동형태 등으로 구성되었다.

4.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안양시 6개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 550명을 확률표본추출법 (probability sampling method)의 형태인 군집표본추출(multiple cluster sampling)을 활용하여 선정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본 연구자의 경험을 근거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전문가(교수)와 중학교 교사들의 검토와 조언, 예비조사와 사전조사를 통해 삭제, 보완, 재편집하여 총4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coefficient)는 0.7-0.8까지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2000년 10월 9일-18일 사이에 연구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추출한 6개 학교에서 실시하였다. 조사는 담임 교사나 자원봉사 전담교사에게 본 연구자가 질문지를 설명해 주고 담임교사가 학급조회 시간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실시하였다. 총 550부를 배부하였으나 성실하게 응답된 질문지 494부만 최종적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5. 분석방법

회수된 설문지는 Spss Win(Ver. 10.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빈도분석, 백분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자원봉사 장(setting)요인에 따라 지속성(지속의지, 지속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chi-square검증을 사용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자원봉사 장(setting)요인이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binary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의 개인, 가정, 학교, 자원봉사 장(setting)요인에 따른 지속성의 차이

1) 개인 요인에 따른 지속성의 차이

다음의 <표 1>에서 보는 바와같이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지속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도덕성과 학교성적, 자원봉사 동기($p<.1$ 로 덜 엄격한 수준에서는)에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의 도덕성이 높을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자원봉사활동의 동기가 이타적일수록 지속의지도 강하고 의무시간에 상관없이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성별과 종교는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지속성이 높은 것은 최순영·김수정(1995), Bandura et al.(1996)와 김경연·하영희(1998)와 일치된 결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도덕성이 향상된 것인지는 개인의 도덕성 정도가 높은 것이었는지에 대해 본 연구에서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조학래(1996)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이 도덕성 향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이 6개월 후에도 지속되었다는 경험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도덕성이 낮은 청소년들에게는 도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속적 자원봉사활동을 의도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특히 청소년들은 성적에 대해 매우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부로 인해 좌절한 청소년 보다는 성적이 높은 청소년들이 성적과 관련된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덜 엄격한 수준($p<.1$)에서는 자원봉사 동기가 이타적일수록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Clary와 Snyder(199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나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동기를 조사한 Anderson과 Moore(1978)의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강제적 활동이긴 하지만 지속성이 높은 청소년들에게는 지역사회나 이웃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학교·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있게 사는 봉사의 모델을 접촉하였던 경험이 있어 이타적 동기를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설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는데, 즉 하위 가설인 <가설 1-3>과 <가설 1-4>, <가설 1-5>만이 지지되었다.

2) 가정 요인에 따른 지속성의 차이

가정 요인에 따라 지속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부모의 관심과 지지 정도와 부모의 후원 및 자원봉사 경험유무에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따뜻한 사랑의 보살핌이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때, 이타적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Staub(1981), Bar-Tal(1976)의 연구

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인간의 도덕적 행동은 외적 강화 없이도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므로써 획득된다는 Staub(1978)의 분석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로 통해 가정에서의 봉사모델로써 부모의 본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결과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부모들도 자원봉사활동에 체험이 있을 때 자녀들의 봉사활동에 대해 부모들이 더 많은 관심과 지지해 줄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설 2의 하위가설인 <가설 2-1>과 <가설 2-2>는 모두 지지되었으므로 가설2는 지지되었다.

<표 1> 청소년의 개인, 가정, 학교, 자원봉사 장(setting)요인에 따른 지속성의 차이

변 수		지 속 성		높은집단	중간집단	낮은집단	χ^2
청소년의 특성요인	도덕성	보통 및 낮음 보통이상		13(6.9%) 49(16.9%)	138(73.0%) 219(75.8%)	38(20.1%) 21(7.3%)	23.324***
		잘함 보통 못함		35(18.7%) 24(13.0%) 7(6.0%)	134(71.7%) 140(75.7%) 89(76.1%)	18(9.6%) 21(11.3%) 21(17.9%)	
	봉사동기	이기적 이타적		29(11.1%) 37(16.8%)	195(74.4%) 163(74.1%)	38(14.5%) 20(9.1%)	5.801#
가정요인	부모의 관심 및 지지	보통 및 적음 보통이상		20(8.3%) 46(18.9%)	185(76.8%) 174(71.3%)	36(14.9%) 24(9.8%)	12.961**
		부의 후원 및 자원봉사 경험	무 유	6(6.2%) 17(19.5%)	78(80.4%) 64(73.6%)	13(13.4%) 6(6.9%)	
	모의 후원 및 자원봉사 경험	무 유		4(5.1%) 26(20.0%)	62(79.5%) 95(73.1%)	12(15.4%) 9(6.9%)	11.198**
학교요인	도움체계유무	무 유		48(12.7%) 18(16.0%)	272(72.2%) 91(81.3%)	57(15.1%) 3(2.7%)	12.569**
자원봉사 장에서의 경험요인	활동내용 만족정도	만족 보통 불만족		33(17.0%) 21(10.1%) 12(13.6%)	145(74.8%) 157(75.9%) 61(69.3%)	16(8.2%) 29(14.0%) 15(17.1%)	8.569#
		기관담당자 만족정도	만족 보통 불만족	20(23.5%) 41(13.2%) 4(4.6%)	58(68.3%) 235(75.8%) 65(75.6%)	7(8.2%) 34(11.0%) 17(19.8%)	
	참여형태	혼자서 소집단으로 대집단으로		7(27.0%) 55(12.9%) 4(12.5%)	16(61.5%) 326(76.7%) 18(56.3%)	3(11.5%) 44(10.4%) 10(31.2%)	17.435** 16.846**

#P <.1 *P <.05 **P <.01 ***P <.00

3) 학교 요인에 따른 지속성의 차이

학교 요인에 따라 지속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학교내 도움체계 유무에서만 나타났다. 즉, 지속성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학교내 도움체계에 대한 인지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의 공식적인 도움체계가 봉사활동을 지원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그러나 봉사모델로서 교사를 존경한 경험 정도, 봉사활동에 실제로 필요한 사전교육여부, 학교장의 권장정도는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학교의 자원봉사지도감독과 지원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자료라고 생각한다. 학교장과 교사는 지속적 자원봉사를 통해서만 입증될 수 있는 인성 함양의 효과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교사가 대부분이어서 체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 지도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생활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데 학교 환경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즉 교사들의 수업부담과 담당해야 할 업무로 인해 체계적인 지도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를 하지 못하므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므로 가설 3은 거의 지지되지 못했으며, 하위가설 중에서 <가설 3-4>만이 지지되었다.

4) 자원봉사 장(setting) 요인에 따른 지속성의 차이

봉사활동 업무에 대한 만족정도와 지속성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즉, 지속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지속성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봉사활동 내용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1$ 로 덜 엄격한 수준에서). 이러한 결과는 Vroom(1964)과 일치된 것으로 청소년들도 봉사활동 업무에 대한 만족감이 자원봉사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청소년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지속적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임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결과라 사료된다.

둘째, 기관 담당자의 만족정도는 지속성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지속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지속성이 낮은 청소년들 보다 담당자의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휘일(1990), 한수정(199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봉사수요처 담당자가 어떻게 지도감독을 했으며, 자원봉사자와 만족스런 관계를 경험하느냐 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인 것이다.

또한 활동형태는 지속성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즉 지속성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대집단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친한 친구와 소집단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또래로부터의 영향이 다른 환경의 영향 보다 많기 때문에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는 친한 친구와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나눌 수 있어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친한 친구와 소집단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가설 4-1>과 <가설 4-2>, <가설 4-3>이 지지되었으므로 가설4는 지지되었다.

2. 청소년의 개인, 가정, 학교, 자원봉사 장(setting) 용인이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력

다음의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특성으로는 도덕성, 학교 요인으로는 도움체계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2> 청소년의 특성, 가정, 학교, 자원봉사 장(setting)요인이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	높은집단 vs 낮은집단			중간집단 vs 낮은집단			높은집단 vs 중간집단		
	계수	표준오차	EXP(B)	계수	표준오차	EXP(B)	계수	표준오차	EXP(B)
Intercept	-9.253	1.606		-3.015	1.096		-6.237	1.264	
도덕성	.171	.037	1.187***	.0918	.027	1.096***	.0793	.028	1.082**
도움체계 유무	1.680	.671	5.364*	1.681	.611	5.372**	-.0145	.319	.999

사례수=494
-2 Log Likelihood=391.246
 $\chi^2=52.937^{***}$

*P <.05 **P <.01 ***P <.00

우선 지속성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지속성이 높은 청소년을 예측하는 변수로 도덕성, 도움체계유무에서 나타났다. 즉, 도덕성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높은 지속성을 가질 확률(odds)이 1.19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체계가 있다고 인지하는 청소년이 높은 지속성을 가질 확률(odds)이 5.36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속성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지속성이 중간정도인 청소년을 예측하는 변수로 도덕성, 도움체계유무에서 나타났다. 즉, 도덕성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중간 정도 지속성을 가질 확률(odds)이 1.1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도움체계가 있다고 인지하는 청소년

이 중간 정도 지속성을 가질 확률이 5.37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이 중간 정도인 청소년에 비해 지속성이 높은 청소년을 예측하는 변수로 도덕성에서 나타났다. 즉, 도덕성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높은 지속성을 가질 확률(odds)이 1.08 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청소년의 도덕성, 도움체계유무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도덕성이 향상되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을 도와주는 교내 체계가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한다면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정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V. 청소년 자원봉사 지속성 증진을 위한 제언

이미 제시된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지속성 증진을 위한 사회사업적 실천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행동은 나를 넘어선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돌봄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중학교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이 생활에서 지속적 활동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변에서부터 친구들을 배려하는 자세와 기본 예절 및 질서를 지키는 자침을 스스로 마련하고 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도덕성 증진 방안이 교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부모 자원봉사단을 각 학교에 조직하여 부모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므로 봉사의 본보기가 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가 청소년 인성에 기여하는 부분을 학부모들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체험을 통한 교육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육성하는 효율적인 방안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모든 것은 학교 당국의 행정적 지원과 지역자원봉사센터나 기관과의 연계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공식적인 체계인 자원봉사센터를 교내에 설치하여 사회복지 기관이나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학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역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므로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봉사수요처, 지역사회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받은 부모들은 교내 청소년 자원봉사 지

도자로 학교장에 의해 위촉받아 현재 학교의 한계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가정, 학교, 자원봉사 장(setting), 지역사회(대학)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사회봉사센터는 학교 지원 교육프로그램을 확립하여 보급하고, 학교에 수요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의 후속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양적 조사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부모, 교사, 자원봉사 장의 담당자들에 대한 질적 조사가 병행된다면 영향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보다 구체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 지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측면의 변인으로서의 참여강도와 지속기간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주관적 측면의 변인으로서의 지속의지에 대한 측정도 단순한 질문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지속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객관적·주관적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며, 보다 정교한 질문으로 조사되어져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많은 시간을 자원봉사 했지만 지속의지가 없는 경우와 의무시간 정도밖에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미래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는 경우를 보통정도의 지속성의 정도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염밀히 보자면 두 집단 청소년들의 지속성은 보통정도라고 분류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으므로 두 집단을 분류하여 세 집단이 아닌 네 집단 영향요인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연·하영희(1998). “사회화 요인들이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호, 김선희, 최종혁(1998).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복지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 경기도.
- 김영호(1992). 자원복지 이론과 실제. 홍익제.
- 김용길(1996). “사회복지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진(1996).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동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은옥(1998). “청소년 자원봉사자 활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회복지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학래(1996).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학래 · 권중돈(1996).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 방안”.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조휘일(1990). “한국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 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휘일(1995).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실천과 활성화 방안.” 오늘의 청소년. 제10권 6호.

조휘일(1998). 현대사회와 자원봉사. 서울 : 흥익재.

최순영 · 김수정편(1995). 인간의 사회적 성격과 발달. 학지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77). 사회복지총람.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수정(1999).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활동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nderson, J. C., Moore, L.(1978). "The motivation to volunteer".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7, pp51-60.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1996). Multifaceted impact of self-efficacy beliefs on academic Function, " Child Development." 67. pp1206-1222.

Bar-Tal, D.(1976) Prosocial behavior :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 Halsted.

Clary, G. E., Snyder. M.(1991). A Functional Analysis of Altruism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Clark, M. S.(1991). Prosocial Behavior. Newbury Park : Sage Publications.

Conrad, D., & Hedin, D.(1981). Instruments and scoring guide of the experiential education evaluation project. St. Paul, MN : Center for Youth Development and Research. University of Minnesota.

Moore, L. F. ed(1985). Motivating Volunteers. Vancouver : The Vancouver Volunteer Centers Pub.

Rice, M. E., & Grusec, J. E.(1975). "Saying and doing: Effects on observer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pp584-593.

Regalski, Chi-Hsein Wang (1995). "The Effect of a School-Based Helper Program on Adolescent Self-Image, Attitude, and Behavior".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4). 429-455.

Roker, Debi., Player Kaite., & Coleman John(1999). Exploring Adolescent Altruism : British

- Young People's Involvement in Voluntary Work and Campaigning. Miranda Yates & James Youni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56-264.
- Rushton, J. P.(1980). Altruism, socialization, and societ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Rushton, J. P.(1982). Social learning Theory an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In N. Eisenberg(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pp77-105). New York: Academic Press.
- Staub, E.(1978). Predicting prosocial behavior : A model for specifying the nature of personality- situation interaction. New York : Academic Press.
- Staub, E. (1981). Promoting Positive Behavior in School, in Other Educational Settings, and in the Home. In the Rushton, P. & Sorrentino, R.M. ed., Altruism and Helping Behavior. Hillsdale, NJ : Erlbaum Pines. A. pp109-133.
- Switzer, Galen E., Simmons, Roberta G., Dew, Mary Amanda., Wang, Chi-Hsein(1995). "The effect of a School-Based Helper Program on Adolescent Self-Image, Attitudes, and Behavior".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15, 429-445.
- Yates Miranda (1999). Community Service and Political-Moral Discussions among Adolescents : A Suterdy of a Mandatory School-Based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Miranda Yates & James Youni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6-31.
- Yates Miranda, Youniss James (1999). Roots of Civic Identity :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ommunity Service and Activism in You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ates Miranda, Youniss James(1997). Community Service and Social Responsibisity in youth.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